

“너하고 나만 알자, 내가 죽었다”

경허 스님 수행 일화

◎ 살인 혐의를 쓰다

경허 스님은 화광동진(和光同塵) 직전에 살인 누명을 쓰게 된다. 경허 스님이 시봉인 사미 영주 스님을 데리고 충남 공주 계룡면 양화리에 위치한 연천봉(連天峰) 등운암(騰雲庵)에 갔다 올 때의 일이었다.

연천봉(連天峰)은 계룡산의 한 봉우리로 동학사(東鶴寺)에서 10리 가량 떨어져 있다. 등운암은 초가 한 칸으로 양화리 방향으로 10리 가량을 다시 내려 가면 신원사(新元寺)가 나온다. 영주 스님이 경허 스님과 함께 등운암에서 신원사로 향하던 때였다. 먼 길을 가야 하기에 영주 스님의 걸방은 펍 두둑했다.

아래쪽에서 젊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 중에는 동학사에서 심부름과 잡일을 하던 양화 김 도령이라는 이도 있었다.

영주 스님은 김도령을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건넸다. “아니, 양화 김도령 아닌가?”

양화 김도령은 그저 영주 스님이 맨 두둑한 걸방을 훑어 볼 뿐이었다. 김도령은 경허 스님을 보고 말했다.

“이 사람과 긴밀히 할 얘기가 좀 있으면요. 잠깐이면 되니까 스님은 먼저 내려가세요. 이 사람도 곧 뒤따라 갈 테니까요”

경허 스님은 영주 스님이 김도령 일행과 잘 아는 사이로 알고 “그래, 할 말이 있다면 하고, 곧 내려 오거라”하며 별로 의심하지 않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다.

경허 스님이 한참을 내려와 뒤를 돌아보아도 영주 스님의 기척이 없었다. 의아스러워진 경허 스님은 영주 스님과 헤어진 곳까지 다시 산을 올랐다. 하지만 이미 영주 스님과 김도령, 한 무리의 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

젊은 사람들은 바로 산적이었다. 산적들은 경허 스님이 하산하자 영주 스님의 걸방을 가로챘다.

“있는 돈 모두 내놓아!”
“가진 거라고는 그 것밖에 없는데유”
“잔말 말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네 목숨이 부지하

지 못할 줄 알라.”

돈이 없는 영주 스님은 강도 일당에게 두 손 모아 빌 수밖에 없었다.

“양화 김도령! 필요한 돈은 다음번에 만들어 드릴 테니 어서 큰 스님을 따라 가게 해주우” 애원하는 목소리에도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빼앗은 걸방을 풀어 해쳤다. 그러나 그 속에는 노잣돈 몇 푼이 있을 뿐 한 옷가지와 책 몇 권 밖에 없었다. 강도 일당들은 푼돈을 거두고 나서 닥치는 대로 옷가지 나무랭이를 쾅개치고 시봉의 몸까지 살살이 수색하였지만, 돈이 나올리는 만무했다.

산적 무리는 돈이 없자 영주 스님을 폭행했다. 사정없이 스님을 발길로 차 쓰러뜨리고는 저만치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 잔혹한 살인까지 자행했다. 그들은 영주 스님을 후미진 숲 속 나무가지에 매달고는 자취를 감췄다.

한참 만에 다시 올라온 경허 스님은 그 현장을 미처 찾아내지 못하고 “허참, 괴이하구나! 다른 길로 간 모양이군!”하고 중얼거리며 하산할 수밖에 없었다.

동학사까지 혼자 넘어 온 경허 스님은 이상한 생각에 갑사(甲舍)에 사람을 시켜 영주 스님이 갑사로 가지 않았는지 물었다. 갑사에서 연락을 받고 영주 스님을 찾았지만 스님의 종적은 묘연했다.

그러던 와중 어느 날 한 나무꾼이 깊은 산골에서 나무에 매달린 사람의 시체를 발견했다. 바로 영주 스님의 시체였다.

경찰의 현장조사 결과 바람이 옆에 있고 발갱기(버선이나 양말 대신 발에 감는 좁고 긴 무명천. 주로 먼 길을 걸거나 막일을 할 때 쓴다)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경허 스님의 시봉이기에 발갱기와 바람도 경허 스님의 소지품이었다.

경찰은 더 이상의 단서가 없자 경허 스님을 의심했다.

“필시 스님이 살인을 했다 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경허 스님은 해인사 학명 스님을 만나러 경상도 지역으로 향했다. 얼마 되지 않아 죽은 시봉에 대한 소문이 해인사까지 전해졌다.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줄도 몰랐던 경허 스님은 살인 누명에도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었다. 당시 경찰 수사는 발달되지 못한 원시적인 수준이

었다. 진범을 찾을 수 없는 까닭에 경찰과 주변 사람들은 경허 스님을 의심했다. 경허 스님에 대한 수근 거림은 그치지 않았다.

주위가 시끄러워지자 경허 스님은 해인사 퇴실당 선방에 내려가 있었다. 서산 개심사 선방의 입승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노스님께서 정말로 영주를 죽인 걸까? 어쩌다 잘못해서 죽였나? 큰스님이 왜 시봉하던 스님을 죽인 단 말이나?”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그 승려는 그 길로 해인사를 찾아 경허 스님을 만났다. 하지만 경허 스님을 보는 순간 ‘생로병사 자체가 마음에 없는 저 어런이 어찌 영주를 죽였겠는가?’는 생각에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만공 스님, 스승의 뜻밖의 말에 당황 사미승 죽음에 ‘살인누명’ 변명없이 ‘뫼난 중생 지은 죄 대신 받자’ 갑산으로 떠난 후 결백 밝혀져

다시 돌아와 만공(滿空) 스님을 만나 인사드리자, 만공 스님이 물었다.

“그래, 스승님께서 잘 계시느냐?”

“소문에 큰 스님께 직접 묻고 싶었는데 부처님께 ‘아난존자를 죽였습니까? 수보리를 죽였습니까?’라고 묻는 것과 같아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왔습니다.”

만공 스님이 스승님께 문안인사도 드릴 겸 해인사로 내려갔다. 퇴실당 선방에서 경허 스님을 만나 만공 스님이 살짝 여쭈었다.

“영주 사미의 생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허 스님이 제자 만공 스님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했다.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영주는 내가 죽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만공 스님의 경저에도 경허 스님의 말은 뜻밖이었다.



그림 · 박구원

상당한 시일이 지나 공주경찰서에서 산적 무리를 검거하면서 경허 스님의 결백은 밝혀진다. 경허 스님이 열반의 길을 찾아 함경도 갑산으로 떠나고 만공 스님이 수터사를 지킬 무렵 산적에 의해 살해됐음이 밝혀진 것이다.

경찰 입장에서 경허 스님의 소지품이 살인도구로 사용됐어도 정황상 경허 스님이 시봉을 해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범행 조사 중 산적들이 갑사 영주라는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했다. 그 이유는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산적무리의 정체를 알기

때문이었다. 산적들은 자신들의 출신과 정체를 아는 영주 스님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을 조금이나마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사를 받냈을 울었다.

경허 스님이 사건에 대해 일체 말이 없었던 까닭은 ‘살인을 한 사람을 위해 대신 형무소에 갈 수도 있다’고 작정했기 때문이었다. 오직 중생이 뫼나서 지은 죄를 대신 받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구성=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9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g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삼중계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토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 문의 : **현대불교 현불잡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녹여주는 골굴사

◆ 주변 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증릉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제1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담 화 문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 종도스님과 법사님께 고합니다. 금번 본 종단의 불미한 일련의 사태로 종도 여러분들께 총무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고는 정토종을 떠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정토종 종도여러분!
우리 종단은 종헌과 종법이 있는 종단이고 총무원법도 있습니다. 몇몇 몰지각한 스님들이 법인 이사장 지산 스님의 사주를 받아서 마치 종단과 총무원이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여 법령도 없이 이사장 지산스님의 명령 한 마디면 체탈도첩, 제명과 임명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창종한 종단이라도 종법과 종헌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는 후학과 후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함인지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독재자처럼 작은 영욕심으로 승려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지산스님은 자중하시어 종단의 어른답게 침묵하고 후학들의 법적인 절차와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인은 금번사태를 수습하기에 앞서 총무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법령도 모르는 스님들이 비상대책 운운 하는것도 우리 종단에는 없는 법령입니다. 중앙총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비상총회소집도 종헌 제39조 6항에 명시된 것처럼 총무원장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번 공고문의 반포이후 초법적인 행위(총무원 무단점거 총무원직인 무단사용 등)를 하는 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공표합니다.

지금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모든 사태는 본인의 부덕의 소치요 업장이라 생각하고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고는 본인은 정토종을 떠나고 후학스님들께서 더욱더 좋은 종단으로 발전하도록 부처님께 기도 올리면서 남은 여생을 기도와 포교와 사회봉사로 보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소송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비상총무회의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애중심을 갖고 종단과 총무원을 염려하시는 종도님들께서는 이번 비상소집에 꼭 참석하시어 앞으로 총무원의 발전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잘못된 일들은 바로잡고 규정과 법규가 바로 서있는 종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비상 총무회의에서 발원하는것이 종단의 발전을 위한 발원이라면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터놓고 토의하겠습니다. 부디 모두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상 총무회의는 종헌 제39조6항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발표하는 것임을 공표합니다.

■ 장 소 : 총무원 대회의실 / ■ 일 시 : 2012년 5월 7일 오전 11시

(사)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무각